

동네 산책

진남 휴게소

진남 휴게소는 한식, 양식 및 분식 등의 식사류 뿐만 아니라 커피 한잔과 함께 피로를 달랠수 있는 카페...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점 및 패션의류샵, 악세서리샵 등이 있다. 관광지까지 있어서 그런 걸까? 드문드문 '차박'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.

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 1356

시간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출발 → 진남 휴게소 도착 2시간(165Km) 소요



진남 휴게소 외부 전경

진남 휴게소를 기준으로 우측 주차장을 지나면 옛 철도 터널을 리모델링한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이 나오는데 그 옆으로 오르막길이 있다. 이 길을 약 7~8분 오르면 진남문이 나오고 이 문을 통과하면 고모산성으로 오를 수 있다.



진남교반

진남교반은 진남 휴게소 맞은 편에 있다.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철교·구교·신교 등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 있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루며, 경북8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.

나도 역사해설가



삼국시대부터 전해온 천연의 요새, 고모산성

고모산성은 문경에 남아 있는 성곽 중 가장 오래전에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산성이라 할 수 있다. 고모산성의 규모는 총 둘레 1,300m(동벽 345m, 북벽 300m, 서벽 375m, 남벽 280m)이다. 신라가 5세기경 문경에 진출한 이후 축조된 거점 성곽으로, 한강유역 진출과 고구려의 남진 방어를 위해 소백산맥 이남에 설치한 전진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조선시대 임진왜란 및 근대 항일의병의 격전지였고, 한국전쟁 때에도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관방유적인 동시에 호국의 성지라 할 수 있다. 고모산성 인근에는 석현성과 성황당, 진남루, 토끼비리 등이 남아있으며,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73기가 분포되어 있다. 성곽을 따라 산성 위로 오르면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. 진남루에서 성곽을 따라 난 오솔길로 이동하면 토끼비리(토끼벼루)라고 하는 잔도(절벽으로 막힌 길을 나무로 이어 만든 작은 오솔길)가 나온다.

조선시대 주요 도로 중 하나였던 영남대로의 일부이다. 대동여지도에 보면 영남대로는 부산에서 대구, 문경새재, 충주, 용인을 지나 서울로 이어져 있으며, 거리는 약 960리에 이른다. 실제로 이 길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가면 약 14일이 걸렸다고 한다. 현재 온전히 남아 있는 영남대로의 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.



*석현성



*성황당



*주막



*토끼비리

〈일부 내용 출처 : 한국관광공사, 두산백과〉 〈일부 사진 출처 : 진남 휴게소, 문경시청, 문화재청〉